

# 정부의 역할은 교통순경처럼...

이국노/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회장

**“지**금의 열악한 상황속에서 우리 플라스틱재활용협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생활용품이며 산업용품을 과학적으로 홍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17일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초대 회장으로 뽑힌 이국노 회장의 말이다.

- 먼저 축하드립니다. 90년 이후부터 환경관련법규를 제정하고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을 제정 공포 하는 등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속에 처해 있는데 업계의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그래서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건속에서는 우리 나라의 플라스틱업계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 도시락 등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규제하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업계(원료생산업체, 가공업체, 용기류 및 상자수요업체, 재생업체, 가공기계업체 등)를 대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의 기구의 탄생이 이루어 진 겁니다. 한국플라스틱 재활용협회 결성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 플라스틱이 공해의 주범이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우선 정부나 국민에게 홍보하고 플라스틱업계 스스로가 재활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의 주범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우선 폐플라스틱이 분리 수거가 되지 않고 대부분 매립 위주로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플라스틱재활용협회는 먼저 PET병 규제는 풀려서 다행이고 앞으로 쇼핑백, PSP(일회용) 규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홍보할 것이고 쓰레기 봉투의 경우 100% 폴리에틸렌인데 이것을 30%의 탄산칼슘으로 유도하려 합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분리 수거되는 플라스틱제, 즉 일회용컵, 도시락, PET병류, 요구르트 용기, 라면용기, PS내포장재, 트레이 등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량이 전보다 더 늘어 날 것이므로



◀ 약력  
한양대 재료공학과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졸업  
전 검도 국가대표(공인 6단)  
한국플라스틱 이사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조합 이사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현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회장

많은 업체가 재생처리에 참여하리라 봅니다. 전문으로 재생처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정부로 하여금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 협회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생원료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플라스틱계 도로경계표시물, 담장대용물, 또는 불통 등 특수규격을 요하지 않는 제품은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제도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시다 보셨겠지만 저의 건물에는 13억을 투자하여 시험원을 두고 운영(4월정식 허가 국가공인)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95년도 세계 재활용협회에 가입하여 홍보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끝으로 한말씀 하신다면,

= 요즘은 세계화다. 국가경쟁력이다 하는 소리가 매우 큼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의 의미는 국가경쟁력이 아니라 그 경쟁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불리한 입장을 치료해 주고 대기업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가격예시제를 두어 정부는 신호등이 고장났을시 수신호처럼 조정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대학때 재료공학(고분자)을 전공하여 여지껏 플라스틱과 가성생활을 꾸려온 이국노회장의 굳은 의지가 보인다.

변준섭 기자